한미 FTA체결, 광주산업효과 얼마나 될까

車수출 10% 증가땐 생산 6,300억원↑

전남대 정기화 교수 밝혀

소득 2,043억·고용 3,811명 늘어나

타이어·기계·금형도 수출증가 기대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자동차 수출이 2005년 금액기준으로 10% 증가할 때 광주지역 생산은 6천300여억원(1.1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 타이어업을 비롯해 기계 및 장비제조업 분야의 수출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나, 축산농가의 피해가 적지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시와 공동으로 21일 광주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하는 '한미 FTA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 주제발표자인 정기화(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한미 FTA 체결로 미국내 2.4%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자동차 수출이 10% 늘어나면서 지역생산은 6천346억8천만원, 지역소득은 2천43억3천만원, 고용은 3천811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광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2005년 기준)을 보면 생산은 전체 제조업의 31.4%, 고용은 17.5%에 달한다.

자동차 관련산업의 대미 수출은 광주 전체의 59.2%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대미 자동차 관련수입은 1천585만달러로, 이중 97%가 자동차 부품이다.

정 교수는 "자동차 부품업체도 외국의 투자를 적극 유치, 품질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해외마케팅에 나설 경우 수익증대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타이어 부문도 4%의 미국관세가 폐지돼 수출증대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 교수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해외공장보다 가격경쟁력을 유지해야 생산이 늘어나고 고용도 증가될 것"이라며 노사관계의 안정을 통한 원가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제조업 생산의 24.8% 고용인원의 18.3%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기계류 및 장비제조업 분야도 희망적이다. 특히 섬유기계, 공기조절기, 금속절삭가공기계, 금형 등은 대미 분업구조에서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어 대미 수출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전기전자업종은 한미 FTA의 혜택을 크게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기전자산업은 광주제조업 생산의 10.9%, 고용인원의 17.2%를 점유하고 있다. 대미수출은 광주 전체의 33.9%에 달한다.

대미 수출입 농산물의 경우 대부분 농수산가공물이나 가공을 위한 원료가 차지하고 있어 관세폐지가 지역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 농수산 가공업의 수익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정 교수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이점을 살리기 위해 자동차·타이어 업종은 노사관계를 안정시켜야 하며, 전기전자업종은 품질과 브랜드파워를 강화시키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출산장려 건강보험 지원 최병길 금호생명 대표와 전갑길 광산구청장 등 관계자들이 20일 광산구청 회의실에서 '출산장려 셋째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금호생명과 광산구는 이날 협약 체결에 따라 광산구 관내 거주(1년 이상) 가구에서 태어난 셋째 아이에 대해 무료로 보험을 가입해주게 된다. 〈금호생명 제공〉

여수·순천·광양 근로자 하루 평균 3.4명꼴 産災

전남 여수와 순천·광양 등 동부권 근로자들은 하루 평균 3명 이상이 산업재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남동부지도원이 지난해 동부 지역 사업장 1만8천957곳(근로자수 21만2천428명)에서 발생한 산업 재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하루 평균 3.4명꼴인 1천245명이 재해를 입어 전년 보다 9.1%, 104명이 늘었다.

유형별로는 업무상 사고가 93.7%인 1천16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업무상 질병이 6.3%인 79명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1.7%인 3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조업(29.4%, 366명), 건물관리 등 기타사업(25.6%, 319명)과 광업, 금융, 운수·창고업(13.3%, 166명)의 순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가 전체의 76.6%에 달했다.

지난해 동부권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수는 35명(업무상 사고 27명, 업무상 질병 8명)으로 전년보다 2명이 늘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제조업(11명), 광업, 금융, 운수·창고업(8명), 건물관리 등 기타사업(4명) 순이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보해 매실주 시장 부활 나섰다

상표 등 변경 마케팅 강화

'매취순'을 생산하는 보해양조(대표 임건우)가 병과 상표 디자인을 변경하고 국내·외 마케팅활동 강화를 통해 매실주시장 부활에 나섰다.

18일부터 시판될 새로운 매취순은 병 전체를 수축필름으로 처리하고 아름다운 매화를 상표에 담아 고급스러움에 세련됨을 더했다.

특히 새로운 매취순 출시에 맞춰 '매취순을 마시면 아름다움이 남습니다'라는 컨셉의 CF를 방영하고 업소 판촉활동, 할인매장 시음행사 등을 통해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해외시장의 공략을 위해 미국 LA에 소재한 수입상사와 연간 60만병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새 매취순은 알콜도수 14%에 용량은 375㎖, 출고가는 3천250원이다.

한편 1990년 출시된 매취순은 5년 숙성시킨 매실원액으로 제조, 지난해까지 1억5천만병(375㎖ 기준)을 판매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엉터리 징세 계획' 67% 오차

양도세 67% 과다 징수·부가세는 22% 덜 걷어

지난해 국세 수입을 집계한 결과 당초 예산액에 비해 양도소득세는 무려 66.6%가 더 걷힌 반면 부가가치세 국내분은 22.1%가 과소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소세입이 발생할 경우 세수 부족에 따른 추경편성,국채발행 등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고 반대로 과다세입은 국민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2006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의 총 세입 실적은 138조443억원으로 예산액(135조3천336억원)에 비해 2조7천107억원이 초과 징수돼 2.0%의 오차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개별 세목의 초과 또는 감액 징수된 금액이 서로 상계된 결과로, 개별 세목별 오차 금액을 절대치로 모두 합할 경우에는 당초 예산액 대비 오차율이 11.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폭의 오차를 보인 세목은 양도소득세로, 예산액 4조7천529억원보다 3조1천676억원이 초과 징수돼 66.6%의 오차율을 보였다.

증권거래세의 예산액과 세수 실적은 각각 1조8천25억원과 2조5천257억원으로 7천232억원이 초과 징수돼 예산 대비 40.1%의 오차율을 나타냈고 종부세의 예산액은 1조200억원이었지만 실제로는 1조3천275억원이 걷혀 오차율이 30.1%로 계산됐다.

이어 인지세(18.5%)와 퇴직소득세(16.4%), 법인세 신고분(14.7%), 특별소비세(10.6%), 증여세(10.5%) 등도 당초 예산액에 비해 실제 세수는 10% 이상이 더 걷혔다.

반면 부가가치세 국내분의 경우에는 당초 추계액 15조1천578억에 3조3천439억원이 모자란 11조8천139억원이 징수돼 -22.1%의 오차율을 보였고 교통세와 이자소득세도 당초 예산액에 비해 각각 18.2%와 10.3%가 과소 징수됐다. /연합뉴스

웨딩 리무진 타보세요 금호렌터카가 최근 출시한 링컨타운카 웨딩 리무진 앞에서 신혼부부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상품은 숙련된 기사, 웨딩꽃장식 서비스 외에 DVD·오디오·미니바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4시간 사용요금은 25만원. 〈금호렌터카 제공〉

기아차 사무계약직 109명 정규직 전환

기아차 노사 양측은 20일 사무계약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기아차는 "그동안 노사 양측은 사무계약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 수차례 협의했으며, 오는 7월1일부로 이들 사무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대상은 광주공장 8명을 포함해 현재 기아차에 근무중인 사무계약직 직원 109명으로, 별도 직군에 속하지 않고 '5급 신입사원'으로 일반직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이에 앞서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19일 사무계약직 361명 전원과 일부 연봉계약직 직원 16명 등 총 377명을 내달 1일자로 일반직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희망의 농촌·농업 만들겠다"

장 봉 조 농촌공사 전남본부장

"위기에 빠진 농업의 체질강화와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일 부임한 장봉조(54) 한국농촌공사 전남본부장은 "농지은행사업과 농촌 종합개발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희망이 있는 농업·농촌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모든 업무를 고객 중심으로 추진하되, '투명한 윤리경영'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나주 출신인 장 본부장은 지난 1974년 무안 농지개량조합에 입사해 농업기반공사 설립준비단 전남도팀장, 강진·완도 지사장, 나주지사장, 전남도본부 관리실장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송경순(47)씨와 1남 2녀, 취미는 등산.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광주조달청-한국폴리텍 '조달서비스' 양해 각서

광주지방조달청(청장 양준호)은 20일 광주시 북구 한국폴리텍 Ⅴ대학에서 한국폴리텍Ⅴ대학과 물자·용역·시설관련 조달서비스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폴리텍Ⅴ대학이 추진하는 사업의 효과적 지원 및 투명하고 열린 행정의 구현 등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폴리텍Ⅴ대학은 용역 및 물품구매 3천만원 이상, 시설공사 1억원 이상 사업을 발주할 때는 광주지방조달청을 이용하며 입찰·계약과 관련한 자료·정보·업무상담·교육 등을 광주지방조달청으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이종태기자 jt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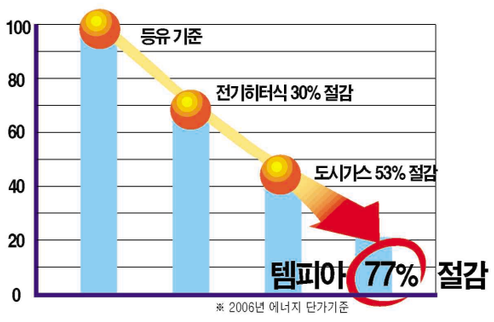
쓸수록 돈 버는 냉 · 난방기 부담 없이 구입하세요
600평 공장의 난방비를 8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절감한 신 기술

냉 · 난방기

1/3로 줄었다

미국특허, 6단계 히트펌프로 템피아 유지비는 1/3입니다

1/3기술은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미국특허는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냉+난방 에어컨 템피아가 만든 세계 최초 6단계 히트펌프 시스템으로, 유지비 절감은 물론 시원한 냉방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조달청 우수 조달물품 지정

구입방법
▸ 업계 최초 템피아 특별 리스로 가볍게
보증금 10% 납부하시고 계약기간 만료후 제품의 소유권 이전 및 보증금을 돌려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 무이자 할부 판매(12개월)
▸ 삼성, 대우, 기은캐피탈 12, 24, 36개월 할부 가능

한정수량 예약판매
무상 지원금 혜택
46만원~200만원까지 무상지원
한국전력에서 원격제어 냉·난방기를 무상 지원해 드립니다.
(일부품목한정)

10평형~160평형까지 항온가습기 공기청정기

에어컨 특별 할인 판매 실시

공기과학 냉+난방에어컨
TEMPIA
템피아의 얼굴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062)955-4222,080-701-7117

MODISH 기품과 중후함으로 완성되는 엔틱의 명품—
모디쉬갤러리 Sale
www.modishgallery.co.kr
모디쉬갤러리 오픈 세일 이벤트

30% 오페라 침실세트
장롱, 화장대, 침대(메트리스별도), 협탁

몽블랑 2+2 가죽쇼파 (5조한정)
2,900,000 → 1,400,000원
아그네스 2+2 가죽쇼파 (5조한정)
3,250,000 → 1,600,000원
황옥 4人 대리석식탁 (5조한정)
1,300,000 → 690,000원
엔틱전화기 (선착순 20명)
→ 39,000원

미가엘 거실장식세트

미가엘 침실세트(연결장롱12자+화장대세트+침대(K)+협탁)

Open기념 황토쉘침대, 장수온돌침대 한정판매

HS-6720 비토
1,990,000원 (5조한정판매)

JSD-비토Q
1,470,000원 (5조한정판매)

미가엘 5단서랍장

아시아 2.2 소파

미가엘 화장대

오메가 대리석 식탁세트

모디쉬갤러리 광주전시장 ☎(062)252-3001~2 / 금호월드 7층 ☎(062)350-8764